

한국의 전통문화 입장에서 본 기독교 가정교육

이 찬 수

(강남대학교)

<요약>

한국인들 가운데 자신의 종교를 묻는 질문에 유교라고 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한국인의 대다수는 특별히 사회적 차원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교에 절대적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 이러한 영향은 기독교 가정 교육 안에서도 드러난다. 가령 한국의 기독교인은 “부모를 공경하라”(출애 20,12) 내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에페 6:1; 골로 3,20)는 말씀을 하느님의 계명이나 말씀으로 지킨다지만, 사실상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기독교인이 부모를 공경한다면, 그것은 성서나 십계명에 그런 말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옛날부터 유교적 가르침에 입각해 부모를 공경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설령 전통 문화에 대해 배타적인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유교와 같은 전통 문화 내지는 가르침은 구체적이고 특수한 신앙 체계에 선행하면서 모든 한국인 안에 이미 부여되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기독교적 가정 교육도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기독교 고유의 의례나 제도보다는 우리 사회의 유교적 질서와 부합되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기독교 윤리도 한국의 전통 윤리에 근거할 때에만 이 땅에서 살아나가고 적용되어 간다는 뜻이고, 기독교적 가르침도 상제관(上帝觀)이나 하늘 신앙과 같은 전통적 종교성에 근거해서만 이 땅에 뿌리 내리게 된다는 말이다. 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것은 한국의 전통적 교육 방향이나 정신을 무시하고서는 기독교적 정신이라는 것 자체가 이 땅에 가르쳐지고 길러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한국 문화를 무시하고서는 한국의 기독교라는 것도, 기독교의 가정 교육이라는 것도 성립될 수 없다는 말이다.

한국의 기독교인은 기독교적 가정 교육 이전에 전통적 교육원리를 먼저 알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기독교의 가정 교육 체계는 전통 문화적 현실과 분리된 독립적 원리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전통 문화에 영향을 받으며 그 안에서 성립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 기독교인은 이런 방식으로 기독교적 정체성과 민족적 동질성을 동시에 유지해간다. 기독교적 교육이 전통 교육적 변증법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 안에 전통적 상황이 반영되고 있는 것은 필연적이다. 의식적인 차원에서는 한국의 전통 문화

와 기독교적 상황, 사회교육과 기독교 교육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갈등과 대립이 있기도 하지만, 무의식적 차원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는 한국의 기독교적 정신과 사회적 실천 속에 분명히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핵심주제어 : ‘한국 기독교’라는 말에서 ‘한국’과 ‘기독교’의 관계, 의식적인 차원에서 전통 종교문화와 기독교의 갈등,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전통 종교문화와 기독교의 조화, 한국의 전통적 교육 원리는 유교, 정치·사회와 종교가 분리된 교육.

Christian Family Education in the light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Yi Chan-Su
(Kangnam University)

<Abstract>

Most of Korean has no self-consciousness as a Confucianist, but they have been greatly influenced unknowingly by Confucianism especially in the social dimension. The influence of Confucianism is also seen in the Christian family educational situation. For examples, Korean Christians try to practice the words,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Exodus 20,12) or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Eph. 6,1), as the Word of God or Law. But what this tendency their parents with filial piety(孝) shows is that Korean has been honored their parents based on the Confucian teachings rather than the Christian teachings. The traditional culture based on the Confucianism is given to all Korean, even to a exclusive Christian, preceding their concrete belief system.

Korean Christian family education, in such a way, has been corresponded with the Confucian order of our society rather than the rituals or constitutions of Christian's own. It means that the Christian ethics is able to be kept only based on Korean traditional ethics, that the Christian teachings is able to take root only based on the traditional religiosity in the view of 'Sangje'(上帝) or the traditional belief in the heaven(하늘), and that the Christian soul can't able to 'be taught or cultivated'(教育, education), whether what is taught or cultivated is positive or not, without regard for the soul of Korean traditional education. Thus no formation of Korean Christianity is possible, no Christian family education is really possible, outside the existing Korean culture.

Before Korean Christians could speak in their Christian family education, there was a awareness that they 'know something traditional educational'. The Christian family education system is, therefore, not an independent autonomous principle, but a specification within a

traditional cultural reality. It is in such a way that Korean Christians keeps to both their identity as the Christian and Korean national nature. If the Christian educational situation is subject to the dialectic of traditional educ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reflect on the traditional conditions in which the Christian family education system functions. There are some conflicts between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Korean Christian situation, between the social education and the Christian education at an conscious level, but Korean traditional culture certainly comes into play in Korean Christian spirit and the social practice at an unconscious level.

Key words: Korean family of Christian education, The traditional culture based on the Confucianism, specification within a traditional cultural reality, conflicts between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Korean Christian situation

I. 가정교육과 종교교육 사이의 긴장

가정은 한 사회의 구성원이 그 사회의 문화를 학습해 가는 최초의 공간이다. 인간은 가정 안에 태어나서 그 가정의 문화를 학습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속한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를 형성해나간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이라는 일정한 교육 현장 안으로 들어오고, 바로 거기서부터 한 사회의 기본 질서도 잡혀나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정은 본질적으로 교육적 기능을 가진, “인간 교육의 원초적인 공간”¹⁾이다. 이 점에서 가정 교육과 교육 일반은 분리되는 것이거나 근본적으로 다른 것일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가정에서의 교육은 근본적으로 그 가정이 속한 사회와 문화 안에서, 한 사회의 교육적 분위기와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특별히 가정교육이 교육의 전문가들이 아닌, 한 사회 안에 사는 보통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생활 현장 교육이라는 점에서, 가정교육과 사회문화의 연계성 내지는 교육적 분위기와의 연계성은 더 분명해진다. 인간은 저마다의 가정교육을 통해 사회 문화 전반을 배우고 이루어나가며, 다시 그에 영향을 받으면서 각자의 가정 문화를 형성해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교육이 아닌, 종교와 관련된 교육, 그것도 가정 안에서 가정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종교교육이라고 할 때에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도 들어있다. 그 종교, 가정, 교육 사이에는, 그저 한 낱말로 묶어버리기 힘든 긴장이 놓여있다는 것이

1) 오인택, 『기독교교육』, (서울 : 종로서적, 1986), 57쪽.

다. 그 긴장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종교교육’과 ‘가정교육’ 사이의 긴장에 무게 중심을 두고 고찰해보고자 한다.

과연 ‘종교적 가정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과연 한 사회에 두루 통하는 일반적 교육이 동시에 특정 종파에 어울리는 종교적인 교육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회 문화에 영향을 받으며 유지되어 가는 가정 안에서 특정 종파에 어울리는 교육은 어느 정도나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일까? 일반적인 교육이 그 사회와 문화에 어울리게 적용된다는 사실에는 종교들간 혹은 종파간 이견(異見)이 크지 않겠지만,²⁾ 그 교육이 종교와 관련된 것이라면 그 사회 문화에 대한 태도 내지는 적용 내용은 종파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특별히 기독교의 가정교육이 과연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 내지는 교육 방식과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원칙적인 기독교 가정교육 이론이 아닌, 기독교 가정교육과 한국의 전통적 문화 및 교육 방식과의 관계에 대해, 그리고 기독교의 가정교육이 ‘한국 안’에서 행해지는 모습에 대해 한국의 종교 문화적 현실을 중시하는 가운데 고찰하려는 것이다.

II. 기독교적 가정관과 한국적 맥락

기독교인이라면 원칙적으로 가정을 하느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기초 공간으로 규정할 것이다.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가족적 삶의 질서를 통해 그러한 규정을 구체화시키려 하고, 일반적 가정교육관에 따르면서도 특별히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한 가운데 가정 안에서 하느님의 체험이 발생할 수 있도록 애쓸 것이다.³⁾ 가정이 하느님의 구원 역사를 드러내는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까닭이다.

-
- 2) 한 사회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종파와 관계없이 그 사회에 어울리게 이루어진다. 가령 한국 사회의 대입 준비생은 기독교인이냐 불교인이냐에 상관없이 한국적 대입제도에 따른다. 고3을 둔 집안은 모두가 입시생이 된다고 할만큼 한국의 대입제도는 전 가족의 진지한 관심사이다. 이 치열한 생존경쟁은 어느 집안에도 있다. 그것이 고급문화인가 저급문화인가에 관한 논의는 차치하고, 분명한 사실은 우리 사회의 교육은 우리의 문화에 어울리게 작용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3) 가정교육이란 기본적으로 가정의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에 관한(about) 교육을 말할 터이다. 이 가정 교육은 밖에서 보자면 가정 일반에 관한 교육일 수도 있지만, 안에서 보자면 저마다의 가정 생활 내지는 가족 관계의(of) 교육이기도 하다. 그리고 더 넓게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과정이 가정교육 속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가족들 사이에서(between), 가족들 서로를 통해서(through) 서로 배워가는 모든 교육이 이 안에 들어 있는 것이다. 기독교적으로 보자면, 가정교육은 가족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기독교교육의 생생한 자료가 되는 것이다.(J.C. Wynn)

그러면서 이 가정에 기독교적 정신을 지속적으로 불어넣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정과 교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아니, 가정이 곧 교회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가정에는 기독교적 정신이 깃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기독교적 가정이란 하느님의 창조 질서가 구체화하는 최소 단위이기 때문이다.⁴⁾ 그러기에 가정을 “하나님의 작은 교회요,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공동체”⁵⁾라고 일컫기도 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기독교 가정 환경 교육”의 핵심도, 교회생활의 핵심과 특별히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그 말씀에 의하여 지도 받고 고취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⁶⁾ 이것은 프로테스탄트 신앙 생활의 기초이며, 가정이든 교회가든 사회든 어디서든 적용되는 대단히 원칙적인 교육관이기도 하다. 그러한 원칙 자체를 부인할 기독교인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원칙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모습과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이견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 배경이 다르고, 사회 문화적 차별성도 두드러진 다양한 사회 안에서 이러한 원칙은 과연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일까? 이러한 가정관 내지는 가정교육관이 실제로 적용되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 가정이나 가정교육에 대한 정의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차치하고, 특별히 “한국”이라는 시공간 안에 살고 있는 “한국의 기독교인”은 일반적 가정교육과 종교적 차원의 가정교육을 얼마나 조화시켜 행할 수 있는 것일까? 한국의 기독교인 집안에서 종교적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것은 “한국 기독교” 안에 들어있는 “한국”과 “기독교”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다시 말해 기독교와 관련하여 “한국”이라는 공간적 접두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이 때 분명한 사실은 한국의 전통 문화와 기독교 신앙의 현실 사이에, 그리고 일반

4) 하느님은 애당초 한 쌍의 남녀를 통해 가정을 이루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요구하신 분이라고 기독교 신앙은 고백하고 있다.(창세 1,27-28) 처음부터 하느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며, 이들이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은 하느님의 창조 능력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느님이 짝지어주신 데 따른 것이다. 그렇기에 사람이 이것을 갈라놓을 수 없다(마르 10, 6-9)는 것이 최소 단위 가정에 대한 그리스도인이 신앙이다. 이런 내용들은 가정생활이 하느님의 질서와 목적을 가진 것이며, 따라서 하느님의 거룩한 뜻을 수행할 때 가정생활의 목적도 성취하는 것임을 뜻한다.(G. M. Schreyer, 채위 역, 『신학과 기독교교육』, (서울 :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79), 243-244쪽)

5) 오인택, 『기독교교육』, (서울 : 종로서적, 1986), 65쪽.

6) 김미경, 『기독교 가정교육』, (서울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99), 서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가 기획한 “교사들을 위한 기독교 교육총서”의 견해

교육과 기독교 교육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에서 기독교가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 배타적으로 행동하고, 그와 심각한 갈등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 것은 그러한 사실을 반영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어떠한 교육이든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회 문화와의 연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내부적으로 이미 상통하고 조화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⁷⁾ 이러한 이중적 사실이 “한국에서의 기독교 가정 교육”이라는 주제를 간단치 않게 만든다. 이미 기독교 중심의 문화가 정착되어 있어 일반 교육과 가정 교육, 종교 교육을 별개로 분리시켜보기 힘든 구미 사회와 달리, 아직 ‘한국의 종교’라고는 말할 수 없을 기독교의 가정 교육을 한국적 상황에서 논하는 데에는 이런 점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다. 각론으로 들어가 보자.

III. 전통 교육 방식과 유교

주지하다시피, 우리의 문화 안에는 다양한 종교들이 깊숙이 들어와 있다. 한국인은 그 정신의 근저에서 다양한 종교적 분위기를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100여 년 전 한국에 들어온 한 개신교 선교사(H.B.Herbert)의 입을 통해 다음과 같이 증언되고 있다: “한국인은 사회적으로는 유교도이며 철학적으로는 불교도이며 고난에 처했을 때는 영혼숭배자이다.”⁸⁾ 1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말의 가치는 크게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선시대 이래로 한국인은 누구나 유교인이 되었다. 가령 자신의 종교를 묻는 질문에 스스로를 ‘유교’라고 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한국인의 대다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교적 가치를 산다. 한국 사회는 교회든 사찰이든 유교적 질서를 크게

7) 이것은 “전통문화”라는 말이 지닌 양면성과 통하는 말이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전통문화”란 사실상 오늘날에도 그 문화 안에 사는 사람에게서는 분명히 작용하는 영향력있는 것이면서도, 그것을 파악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기울이지 않는 이에게는 잊혀지는 경향이 있는 그러한 문화적 측면을 말한다.(이계학·유혜령·손직수·이홍우, 한국인의 전통 가정교육 사상,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132-135쪽.) 기독교인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배타하거나 그것과 갈등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른바 ‘전통문화’가 자신과 별 관계가 없는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실상 누구에게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전통문화라는 점을 중시하겠다.

8) H.B.Herbert, 신복룡 역주, 『대한제국멸망사』, (서울: 집문당, 1999), 469쪽. 이 책에서는 ‘영혼숭배’를 精靈說, 샤머니즘, 拜物敎의 미신 및 자연숭배 사상을 일반적으로 포함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이것이 한국적 종교성의 근간이라 말하고 있다. 어느 정도는 옳은 판단으로 보인다.

벗어나지 않는다. 유교적 질서란 무엇인가? 그 핵심은 자식이 부모를, 백성이 임금, 아랫 사람이윗사람을 받드는 ‘효’(孝), ‘충’(忠), ‘서’(序)에 있다. 이 가운데 전통적 가정 교육과 관련해서 으뜸되는 덕목은 단연 ‘효’이다.

한국의 교육계에서는 삼국시대 이래 <효경>(孝經)을 필수 교양과목으로 지정해 왔고, 불교에서는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여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과 같은 경전이 널리 읽혀 왔다. 이것은 종파를 막론하고 한국의 교육 현장이라면 어디서나 적용되는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기독교인도 “부모를 공경하라”(출애 20,12) 내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에페 6,1; 골로 3,20)는 말씀을 하느님의 계명이나 말씀으로 지킨다지만, 그것이 성서에 써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성서에, 십계명에 그런 말씀이 있다고 해서 한국 기독교인에게 부모 공경의 태도가 새삼 설득력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 사람은 옛날부터 유교적 가르침에 입각해 - 그리고 불교적 해석에 뒷받침되어 - 부모를 공경해왔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든 누구든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특히 유교적 가르침의 핵심이다. 한국인은 유교적 질서에 따르면서 사회적 질서도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효’를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한 것이 곧 ‘충’(忠)이다.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특히 조선 중기 이래 ‘효’와 그것의 확대로서의 ‘충’을 중심으로 하는 수직적 가족국가 체제를 유지해왔다. 국가는 왕을 정점으로 하는, 사실상 거대한 가족적 체계였다.⁹⁾ 조선 왕조는 사회의 최소 단위인 가족 안에서는 가부장적 ‘효’의 질서를 강조하고, 그것을 왕에게 적용하여 ‘충’의 차원으로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국가적 통치 전략을 세웠던 것이다. 이것은 조선 사회가 가족적 질서를 기반으로 통합되어 있던 사회임을 뜻한다.

또 전통 사회 질서의 근간인 ‘장유유서’(長幼有序)는 오늘까지도 우리 사회 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유교적 덕목이다. 한국 사람은 교회든 절이든, 아래 위를 나누지 않으면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고 나서야 말을 높여야 할지 내려도 될지가 정해지고, 그래야 인간적인 관계도 맺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효’, ‘충’, ‘서’를 한 데 묶는 개념이 ‘경’(敬)이다. ‘경’은 ‘효’, ‘충’, ‘서’의 요체이다. 성리학에서 학문과 수양의 핵심을 ‘거경궁리’(居敬窮理)로 보면서 ‘경’을 앞으로 내세운 것도 ‘경’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가정 교육이든 학교 교육이든, 한국 사람은 사회질서에 있어서는 윗사람을 ‘공경’하고, 언어 구사에 있어서는 ‘경어법’을 제대로

9) ‘국가’라는 단어에 이미 ‘집 가(家)’자가 들어있는 것도 한국 사회가 전통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족 중심으로 움직여왔음을 보여준다.

따를 때, 즉 ‘경’을 실천할 때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는 평을 듣게 된다. 이 모든 것은 거의 유교에서 받은 영향이다. 이런 영향을 받아 산다는 점에서 한국의 기독교인은 어느 정도 유교적 기독교인일 수밖에 없다. 물론 불교도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 불교도도 어느 정도는 유교적 불교도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적’ 교육관의 보이지 않는 핵심에는 유교가 자리잡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기에 종종 한국의 전통적 교육 방식으로 유교적 교육관이 거론되는 것이다.

IV. 유교전통과 기독교

이것은 한국의 가정교육 전반에 그대로 적용된다. 한국에서는 설령 제사를 지내지 않는 보수적 기독교인 집안이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유교적 원리와 질서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진다. 여전히 ‘엄부자모’(嚴父慈母)의 분위기가 통용되며, 한국인의 이상적인 가족관은 엄한 아버지를 가족의 정점으로 하고서 따뜻한 어머니가 그 체계를 뒷받침해 나가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체계를 유지시켜나가게 해주는 대표적인 행사가 전통적인 집안 제사이다.

한국인은 21세기를 맞이하고 있는 현재까지 여전히 대다수가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거나, 적어도 그 제사적 분위기만큼은 계속 유지해오고 있다. 기독교(특히 개신교) 집안에서는 많은 경우 전통적 제사 대신 ‘추도예배’(追悼禮拜)라는 형태로 의례의 모습을 바꾸었지만, 사실상 그것도 제사 풍습의 연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그 심리적 정서에 있어서도 제사와 추도예배는 그다지 이질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기독교적 가르침에 충실해야 하면서도, 조상을 모시는 정신까지 부정할 수는 없기에, 추도예배라는 옷을 입은 다른 형태의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유교 위에서, 이미 유교인이었던 한국인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렇기에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여타의 유교적 관혼상제 의식은 여전히 따르고 있는 것이다.

다만 우상숭배 금지조항을 기독교적 정통 신앙 체계로 인정하기에 절하는 행위만은 금지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실천함으로써 기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지만, 본래 유교인이기에 3일장이나 폐백 같은 전통적인 의례는 그대로 유지해오고 있는 것이다. 교육이 기본적으로 그 사회에 어울리는 가르침을 통해 사람을 사람답게 기르는 행위라면, 한국 기독교의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이미 유교적 배경을 전제하고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적 가정교육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기독교 고유의 의례나 제도보다는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질서와 부합되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기독교 윤리도 한국의 전통 윤리에 근거할 때에만 이 땅에서 살아나가고 적용되어 간다는 뜻이고, 기독교적 가르침도 상제관(上帝觀)이나 하늘 신앙과 같은 전통적 종교성에 근거해서 뿌리내리게 된다는 뜻이다. 혈연적 가족 체계 중심의 문화로 인해, 그리고 ‘현세적 공리주의’ 경향으로 인해¹⁰⁾ 한국 기독교인이 주로 하는 기도의 내용도 ‘우리 가족의 축복’에 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것은 모두 한국의 전통적 교육 방향이나 정신을 무시하고서는 기독교적 정신이라는 것 자체가 이 땅에 ‘가르쳐지고 길러질 수’[教育] 없음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보면, 성서적 규범을 근거로 기독교적 가정교육이 이루어져나가는 것이라기 보다는, 다음에서 보겠지만, 역으로 한국의 전통적 가정교육관을 성서적 원리로 해석하고, 또 기독교인의 생활에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기독교 가정교육이 이루어져나가는 것이라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다.

V. 전통 가정교육의 원리와 기독교적 해석

전통적으로 한국의 가정교육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쳐온 문헌은 아무래도 <소학>(小學)일 것이다. 주자(朱子)의 저술인 소학은 명륜(明倫)과 경신(敬身)을 통한 윤리적 삶, 도덕적 질서의 확립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아동교육서이다. 여기서 ‘명륜’이란 오륜을 밝힘이고, ‘경신’이란 몸을 공경히 닦는 것이다. 오륜, 즉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父子有親), 임금과 신하 간의 의리(君臣有義), 남편과 아내간의 분별(夫婦有別), 연장자와 연소자 간의 질서(長幼有序), 친구간의 믿음(朋友有信)의 실천을 통해 사회적 삶과 질서를 확립하되, 언제나 몸을 공경히 닦는 행위를 수반하는 가운데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신’을 통해 오륜을 확립, 즉 ‘명륜’하려는 것이 전통적인 한국 교육관의 근간이자 목적이라 할 수 있다.¹¹⁾

10) 최종철, 「종교의 일상사회학」, 『한국인의 일상문화』, (서울 : 한울, 1996), 167-170쪽.

11) 박세무의 <동몽선습>(童蒙先習)에서도 “천지간에 있는 만물 중에 인간이 가장 귀한 까닭은 오륜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 첫머리에서부터 적고 있고, “사람으로서 이 다섯 가지 도리를 알지 못하면 금수와 다름없다”고 말한다. 율곡이 편찬한 <격몽요결>(擊蒙要訣)에서도 올바른 사람을 만들어주는 “학문이란 별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어서는 마땅히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되어서는 마땅히 효도하고, 신하가 되어서는 마땅히 충성하고, 부부가 되어서는 마땅히 분별이 있고, 형제가 되어서는 마땅히 우애하고, 젊은이가 되어서는 마땅히 어른을 공경하고, 친구가

이러한 ‘명륜’의 정신은 박세무의 <동몽선습>(童蒙先習)이나 율곡이 편찬한 <격몽요결>(擊蒙要訣)에서도 주요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서구 문화를 지향하면서 사회가 더욱 수평화하고 있는 오늘까지도 한국 사회의 교육 정신 안에 면면히 유지되어오고 있다. 어떤 종교나 종파든 이러한 유교적 교육관을 떠나 별도의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기독교의 가정교육관이라고 하지만, 그것 역시 <소학>이나 <동몽선습>, <격몽요결>, 더 나아가 <논어>, <맹자>, <예기>와 같은 유교적 교육관이나 가르침과 근본적으로 분리되는 것은 아닌 셈이다.

가령 한국의 전통적 가정교육의 원리로 거론되는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을 보자: ‘적시(適時)의 원리’, ‘수범(垂範)의 원리’, ‘지행합일(知行合一)의 원리’, ‘아동존중의 원리’.¹²⁾ 이것들은 모두 위에서 말한 유교적 가르침과 통하는 것들이다. 이 가운데 ‘적시의 원리’란 ‘때’에 적합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교육에서도 나이와 때에 맞는 가르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아마도 성경에 친숙한 기독교인이라면 이것을 보고는 전도서 3장에 “하늘 아래서 벌어지는 무슨 일이나 다 때가 있다”는 구절을 떠올릴 것이고, ‘때(카이로스)’를 중시하는 성서적 시간관을 연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수범의 원리’란 어른이 먼저 모범을 보일 때 자식이 옳게 배우고 그에 따라 살게 된다는 이치를 말한다. 한국의 기독교인들 역시 이것을 자연스럽게 따르면서, 형제와의 불화를 해결하지 못하고서 예배를 드리려는 행위의 모순을 지적한 예수의 교훈(마태 5,22-24)이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너희도 행하라고 본을 보여준 것”(요한 13,15)이라는 예수의 말을 연상할 것이다. 예수라는 ‘본’과 그 본의 실천(‘보기’)이라는 도식은 기독교 교육 어디서나 적용되는 근본 정신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의 어른들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격언을 염두에 두고서, 적어도 자식들 앞에서만큼은 부끄럽지 않은 부모이고자 애쓰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행합일의 원리’에는 말 그대로 얹은 행위로 드러날 때 진정한 것이 된다는 뜻이 들어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이 원리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야고 2,26), “도를 들었으면 행해야 한다”(야고 1,23) 등의 말과 연결지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 민족이 목숨 못지 않게 중시해온 ‘지조’(志操) 내지는 ‘선비정신’은 말과 행동의 일관성, 삶과 죽음의 일관성, 즉 ‘지행합일’ 정신의 다른 표현으로서, 기독교인에

되어서는 마땅히 신의가 있는 것”이라 하여, ‘오륜’의 확립을 학문의 목표로 삼고 있다.

12) 김광웅, 「한국 전통 가정의 교육원리」, 강남대학교 인문대학 학술대회 자료집, 1999, 10-22쪽. (이견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전통적 가정교육 원리 내지는 정신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도 ‘믿음과 행위의 일관성’으로 해석되면서 교회 안에서도 신앙적 원리로 충실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신앙의 일관성이 ‘지조’의 연장선에서 파악되고 있는 셈이다.

또 전통적으로 한국의 가정 교육에서 어린이를 존중해 왔다면(아동존중의 원리), 기독교인은 당연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마태 25,40)이라든지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마태 18,3)이라든지,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하늘 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마태 19,14) 하는 예수의 말을 떠올리면서 그것을 기독교적으로 해석하게 될 것이다. 기독교 신앙은 보잘 것 없는 이를 존중하는 가운데 실천된다고 봄으로써, 자연스럽게 전통적 가정 교육의 원리를 기독교 안에 수용하게 되는 것이다. 아니, 사실상 전통적 가정교육 원리가 기독교라는 외형을 입고 스스로를 드러내는 셈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성서적 가르침도 기존의 한국 문화 내지는 정신 위에서 설득력을 얻어간다. 이러한 전통적 교육 정신이 골수에 박혀있는 한국인은 새삼스럽게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전통적인 정신을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해 가는 가운데 민족적 동질성과 기독교적 정체성을 동시에 유지해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한국의 전통적 교육관에 근거해 기독교적 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예들인 것이다.

VI. 일반교육과 종교교육 사이의 괴리

지금까지는 아무리 서구에서 들어온 기독교 교육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교육인 한, 한국의 전통적 가정교육 정신 내지는 문화에 근거해 이루어지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로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의 기독교인이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 내지는 교육 정신을 의식적인 차원에서까지 존중하고 따르려 한다는 사실까지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무엇보다 한국 문화 그 저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층적인’ 차원의 일이었다. 한국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유교적 질서에 익숙하다는 사실을 뜻할 뿐, 구체적이고 의식적인 차원에서까지 한국의 전통 문화와 기독교가 자연스럽게 조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기독교 가정교육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면 원칙적인 교육론을 펼 때와는 달리, 실제로 한국의 전통 문화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서

술하고 적용하고자 할 때는 기독교적 종교 교육과 일반 교육은 갈등 양상을 보인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여기에는 무엇보다 종교와 사회를 분리시켜 생각해온 근대적 의미의 종교관이 들어있다. 이 글에서는 일반 교육과 종교 교육 사이의 갈등 양상을 일단 정교분리(政敎分離)라고 하는 근대적 종교 현실을 중시하는 가운데 찾아 보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일반교육과 종교교육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었다. 앞에서 본대로, 유교적 가르침은 일반 학교 교육의 핵심이었으며, 그만큼 이들은 통합되어 있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종교와 사회를 분리해 보아온 서구 근대주의의 영향을 결정적으로 받으면서부터는, 일반교육과 종교교육은 서로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종교교육은 신앙적이고 고백적인 차원에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일반적이고 학문적인 이해로는 다 포괄할 수 없으며, 따라서 종교교육은 종교적/신앙고백적 이해를 전제하고서만 성립될 수 있다는 강한 선입견을 가지게 된 것이다. 기독교 교육과 일반 교육은 대립적인 것으로까지 보는 경향도 생겨날 정도로.... 이러한 견해는 기독교적 종교교육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전적인 의미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실제적이고 분명한 순서상, 신앙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결정적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그 뒤를 따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 교육에서는 먼저 신앙의 준비를 갖춘 뒤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더 깊은 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종교교육에서는 주님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분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종교교육은 기독교의 문화적인 힘 보다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 기독교의 생명력과 풍요로움이 그리스도와의 친교로서 드러나도록 하는 데 더 관심을 가진다..... 종교교육은 학생이 소집된 뒤 자신의 전 생애를 복음에 비추어 생각하고 숙고하게 될 때에만 실제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¹³⁾

위 항목에서는 종교교육에서 기독교 신앙의 우선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면, 다음 항목에서는 기독교 신앙과 사회 생활의 대립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정에서 볼 수 있는 형제 사랑 이상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해야 한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이며, 용서와 회생이 요구되는 곳에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 생활의 전투적인 요소를 고려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하다면 아무리 강한 인간적 유대나 이 세상에 바쳐온 충성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¹⁴⁾

13) L. Lentner, *Religious Education, Sacramentum Mundi*, vol.2, (London:Burns & Oates), pp.225-26

14) 마태 10,37; 루가 14,26)(J.C.Wynn

이러한 종교교육관은 일반적 세속 생활과의 대립적 자세를 보여준다. 가정교육에서도 그것이 종교적인 차원의 교육일 경우에는 마찬가지로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 가정교육과 종교적 가정교육을 분리시켜 볼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대립적인 자세도 강하게 드러난다. 이것은 종교와 사회를 분리시켜 보아온 서구의 세속화 경향과도 무관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성과 속, 종교와 사회 내지는 정치를 분리시켜 보아온 서구 근대주의적 종교관이 한국의 기독교적 가정교육관 안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자리잡고 있는 셈이다.

VII. 정교분리적 교육 현실

그러나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사회 구조와 종교 구조가 긴밀하게 결합된 구조를 해왔다. 거기서 종교는 사회의 정치·문화·사회제도들과 별개로 떨어져 있지 않았으며, 대립적인 것은 더욱 아니었다. 그러다가 개항기 한불조약(1886) 이후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서구의 근대 문화가 밀려들어오고, 일본 총독부가 한국의 종교에 대해 정교분리 정책을 펴면서, 그 결합 구조는 와해되기 시작했다. 특별히 사회제도를 떠나서는 생존이 불가능했던 조선사회의 지배종교 유교는 정교분리적 현실 속에서 급격히 사회적 주도권을 잃어갔다. 이것은 유교 국가인 조선의 체제를 강제로 와해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었다.¹⁵⁾

그러나 기독교의 경우는 달랐다. 기독교는 이미 종교와 정치, 성과 속을 분리해 생각한 서구 근대주의적 분위기에 익숙했으며, 더욱이 기독교 일원적이었던 서구 문화 안에서 행해지던 교육에는 이미 기독교적 종교성이 반영되어 있었다. 따라서 서구적 교육이라는 것도 서구 문화라는 옷을 입고 있는 기독교 교육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었다.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세운 배재학당(1885)이나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세운 경신학교(1886) 등과 같은 교육 기관에서도 종교의 영역을 그다지 강요하지 않는 근대 교육을 시키는 듯 했지만, 사실상 그것은 근대적 교육을 통한 기독교의 선교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원칙적인 차원에서는 교육이 정치 구조와 분리된 영역에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분리된 세속 교육을 통해, 사실상 세속 교육과 연결되어 있는 기독교적 문화 내지는 종교가 전파되고 있었던 것이다.

15) 한국종교연구회, 『한국종교문화사강의』, (서울 : 청년사, 1998), 355쪽.

이런 식으로 당시 정교분리 제도의 도입은 오늘날 한국의 외적 종교지형을 형성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유교를 비롯한 전통 종교는 쇠락하고 기독교를 위시한 서구의 종교는 양적인 팽창을 이루었다. 오늘날까지 전통 종교가 적어도 그 외적인 측면에서는 과거의 전성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근원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⁶⁾

그 뿐 아니었다. 이러한 근대교육의 도전과 기독교의 양적인 팽창은 한국의 전통적 학문과 교육의 내용까지도 바꾸어 놓았다.¹⁷⁾ 단일하게 유지되어 오던 전통 교육적 흐름이 과학, 문학, 수학, 철학 등 여러 분야로 세분화되었고, 본래 궁극적인 인간의 깊이 전체와 연결되던 ‘종교’도 여러 교육 분야나 학문의 영역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는 경향이 생겨났다. 서구적인 것이 주도하는 가운데 한국의 전통적인 것과 뒤섞였으며, 종교와 사회·정치 등도 급격히 분리되어 나갔다.

근대 공교육 체계가 기독교 선교사 중심으로 도입된 이후로는 전통 교육을 담당하던 종교인들이 근대 공교육 체계에서 배제되는 일도 생겼다. 과거에는 종교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발전한 전통 교육이나 의료 등의 영역이 별도로 독립되다 보니, 이것은 전통 종교와 연계된 제반 사회세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가 점차 대세를 이루어가면서, 유교를 중심으로 정치와 종교의 통합 체계를 이루어가던 한국 사회의 교육 체계에는 일대 변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일반 교육과 종교의 영역이 하나의 모습으로 섞여 있다가, 종교의 영역이 ‘반강제적으로’ 떨어진 이후에는 전통적 종교교육이 세속 학문에 흡수되어 버리거나 외면당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성장한 기독교는 비교적 단기간에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한국의 전통 문화 입장에서 보자면, 기독교는 사실상 한국의 사회 체제를 흔들어놓은 뒤, 사회의 재통합에는 큰 ‘방해요소’로 작용했고, 현재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종교라는 것을 일반 사회적 삶이나 교육 제도와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가 기독교이기도 했다.¹⁸⁾ 유교는 이미 하나의 제도

16) 한국종교연구회, 『한국종교문화사상의』, (서울 : 청년사, 1998), 353-356쪽.

17) 물론 서구에서도 중세 이후 형식상으로는 종교와 사회가 분리된 이래 종교교육과 일반교육은 역시 별도의 장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 학문의 중심은 신학이나 철학과 같은 것에서 과학 기술 분야로 바뀌어갔다. 실용성을 중시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인문학에서 과학기술로 무게중심이 옮겨간 데 지나지 않았다면, 한국에서는 그 학문의 내용 자체가 달라진 것이다.

18) 국가에서는 종교를 제외한, 세속적 국민 교육에만 관심을 기울였고, 종교에서는 정치 구조에 긴밀히 영향받아 사는 사람들의 사회적 삶은 도외시한 채, 인간의 내면적인 영역에 치우친 교육을 하게 되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라는 것 전체가 교리나 내적 신앙으로만 제한되

종교로 대상화시켜볼 수 없을 만큼 한국인의 삶 안에 들어와 있었기에, 정치나 사회 제도와는 ‘별개로’ 소개된 기독교가 마치 종교라는 것의 전형처럼 비쳐지기도 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 본래 일상적 삶의 질서와 분리되어 있는 초월적인 세계와만 관련된 것으로, 그리고 주로 개인의 내적 신앙 차원에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종교’와 ‘교육’도 대립되는 것으로 보는 경향도 커졌고, ‘종교교육’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신앙교육, 교리교육의 차원 안에서만 그런 것이라는 선입견을 강하게 가지게 된 것이다.

VIII. 기독교 가정교육의 실제

이런 식으로 교육은 교육이되, 그것이 ‘기독교적 종교’ 교육으로 받아들여지는 곳에서의 교육은 사실상 일반 교육과는 구분되는, 내면적 기독교 신앙의 차원으로만 제한되어 수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독교 신앙에 입각해서만 하느님의 피조물로서의 본 모습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기독교인 가정이라고 해도 종교 교육과 일반 교육은 서로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이라는 선입견을 버리지 못한다. 교육 전반은 국가에서 주도하는 세속적 국민 교육에 맡긴 채, 내면적이고 신앙적인 정체성 확인 작업에 머무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제사를 지내는 대신에 추도예배를 드리고, 기독교적 정신이 가정 안에 늘 깃들도록 염원한다지만, 일반 교육과는 다른 내면적이고 신앙적인 차원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기독교 신앙에 비교적 충실한 가정이라고 해도, 종교교육이란 매일 또는 매주일, 혹은 그밖에 정기적인 행사로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교리 내지는 성경 공부를 하는 정도로만 파악되고 만다. 이 때 드리는 가정 예배는 흔히 교회에서의 예배를 축소한 형태이며, 성경 공부도 교회에서의 공부와 그다지 다른 것은 없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가정은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가정교회론을 설파하는 데 그친다. 교회에서의 예배와 구분되는 가정 예배만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별로 없는 셈이다. 있다면

거나 표현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풍전등화와 같던 조선을 염려하던 민족주의자들에게는 기독교가 조선의 정치·사회적 현실을 회복시켜줄만한 적절한 수단으로 보이기도 했다. 특별히 개화기에 속했던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에게서는 기독교 교리 내지는 종교적 진리에 관한 관심은 별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보다는 기독교를 통해 항일적 정신을 고취시키고, 나라의 회복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는 민족의식이 강하게 드러난다. 이것은 기독교를 정치나 사회와 분리된 내면적 신앙의 차원으로만 제한시킬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독교가 한국 안에 정착된 이후 사회적 차원 보다는 내면적 신앙의 강조가 두드러졌던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앞에서 보았듯이, 기독교 고유의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전통적, 유교적인 것이다. 전통적인 삶의 질서나 가정교육관과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채, 그 내면적 신앙의 차원에 대한 강조를 통해 기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기독교 가정교육이 이어져오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제도화가 잘 되어있는 가톨릭의 경우와는 달리, 여러 종파로 분열되어 있는 개신교에서는 가정교육에 관한 통일된 입장을 가지기 힘들다. 설령 신학적이고 종교교육학적인 차원에서 보편적인 가정교육론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과연 다른 나라와 구분되는 한국이라는 현실 안에 적용되는 모습과 얼마나 연결되는 것인지는 다른 문제인 것이다.

물론 이것은 비단 기독교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서구적 교육문화와 방식에 영향 받아 그에 따라 살 수 밖에 없는 한국인이라면 어느 종파에 속한 가정이든 거의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세기 한국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라면 어떤 종파에 속해 있느냐에 상관없이, 일반 교육은 학교에 일임하고, 가족 관계 내지는 공동체적 질서는 자연스럽게 유교적 원리에 따르는 가운데, 저마다의 신앙의 확립을 공고히 하려는 차원에 머물러 있는 형편인 것이다. 종교와 정치, 교회와 국가, 신앙과 사회를 대립적으로 파악하게 만드는 이러한 사고 방식은 서구 근대주의가 가져다준 난제 중 하나이다.

< 참 고 문 헌 >

- 김광웅(1999), 「한국 전통 가정의 교육원리」, 강남대학교 인문대학 학술대회 자료집.
- 김미경(1999), 『기독교 가정교육』, 서울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 오인택(1986), 『기독교교육』, 서울 : 종로서적.
- 이계학 · 유혜령 · 손직수 · 이홍우(1994), 『한국인의 전통 가정교육 사상』,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최종철(1996), 「종교의 일상사회학」, 『한국인의 일상문화』, 서울 : 한울.
- 최준식(1997), 『한국인에게 문화는 있는가』, 서울 : 사계절.
- 한국종교연구회(1998), 『한국종교문화사강의』, 서울 : 청년사.
- Herbert, H.B./신복룡 역주(1999), 『대한제국멸망사』, 서울 : 집문당.
- Lentner, L. *Religious Education. Sacramentum Mundi*, vol.2, London: Burns & Oates.
- Schreyer, G.M./채위 옮김(1979), 『신학과 기독교 교육』, 서울 : 대한기독교교육협회.
- Wynn, J.C. Family Life Education. *The Westminster Dictionary of Christian Educati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